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80권 2호 2023년 5월

vol. 80, no. 2, May 202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80권 2호(2023. 5. 31)

/

차례

| | | | |
|-------------|---------------------------------------|-----|-----|
| 기획논문 | 땅에서 꺼낸 고대 법률 | | |
| | 진한(秦漢)시기 조령(詔令)의 반포와 령(令)의 정비 | 김병준 | 7 |
| | 진한(秦漢)시기 좌사(佐史)에 대한 재고찰 | 김지은 | 63 |
| | 진한(秦漢) 형벌체계 형성과정의 일고찰 | 방윤미 | 99 |
| | 사구(司寇)의 기원과 '정형'(正刑)화 과정을 중심으로 | | |
| | 진(秦)·한초(漢初) 사면(赦免)대상 확대 양상과 | 김보람 | 147 |
| | 한문제(漢文帝) 형법개혁 | | |
| 일반논문 | '향당(鄉黨)의 공공화', 상주 사족의 존애원(存愛院) | 김 호 | 189 |
| | 설립과 유의(儒醫) 성람(成灑) | | |
| | 정치소설의 담론적 네트워크와 산책자/스파이의 | 하신애 | 223 |
| | 유라시아 문화지리 | | |
| | 박태원, 「아세아의 여명」(1941)의 | | |
| | 중국·홍콩·인도차이나 표상을 중심으로 | | |
| | 1960~1970년대 초 지식인들의 사유구조와 | 윤상현 | 267 |
| | 역사 서사 | | |
| |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 | |
| | 비극의 희극으로의 변형 | 김화임 | 301 |
| | 클라이스트의 『깨어진 항아리』 | | |

| | | |
|----|---|---------------------|
| | 친밀성의 물화 사회철학적 분석을 위한 시론 | 정태창 327 |
| | Structure Priming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Null Arguments | Kang, Chorong 367 |
| 서평 | 2·8독립선언을 새롭게 보는 이정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편(2023), 배영미·박준형 옮김, 『동아시아 속 2·8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의: 젊은이들의 만남과 꿈』, 삼인, 231쪽 | 최우석 403 |
| | 테두리를 허문 저항미술 서유리(2022), 『이탈과 변이의 미술: 1980년대 민중미술의 역사』, 소명출판, 528쪽 | 이나바(후지무라) 마이 415 |
| | 우리들은 이야기를 만든다 김성경(2023),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창비, 256쪽 | 김민지 429 |

Journal of Humanities
Vol. 80 No. 2, May 2023

/
Contents

Special Topic: Ancient Laws Taken from the Earth

Enactment of Emperor Edict and Its Arrangement as an Ordinance in
Qin and Han Period

Kim, Byung-joon | 7

Rethinking Zuoshi of the Qin and Han Periods

Kim, Ji-Eun | 63

A Study on Sikou in Qin and Han's Penal System

Bang, Yun Mi | 99

The Expansion of Amnesty in Ancient China and the Reformation of Criminal
Law by Emperor Wen (文帝) of the Han Dynasty

Kim, Bo Ram | 147

Articles

“Socialization of Local”, a Public Hospital, Jonaewon Established by Sangju’s
Literati and Literati-physician Song-ram’s Activity

Kim, Ho | 189

The Network of Political Fiction and Eurasian Cultural Geography of
the Stroller/Sp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s of China, Hong Kong, and Indochina
in Park Tae-won, *The Dawn of Asia* (1941)

Ha, Shin-ae | 223

Modernization Theory and Historical Narrative in 1960s-1970s South Korea

Yun, Sang Hyun | 267

From Tragedy to Comedy

The Broken Jug by Heinrich v. Kleist

Kim, Hwa Im | 301

Reification of Intimacy

A Socio-Philosophical Analysis

Jung, Taechang | 327

Structure Priming i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Null Arguments

Kang, Chorong | 367

Book Reviews

A New Milestone in the February 8th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Review of *Proclamation of the Korean Young Men's League for National Independence in East Asia, Its Historical Significance* by the History Museum of J-Koreans

Choi, Wooseok | 403

Resistance Art That Breaks Down Borders

Review of *Dislocation and Counter-Subjectification: A History of Minjung Art in the 1980s Korea* by Seo, Yuri

Inaba(Fujimura), Mai | 415

Writing as 'A Story-telling Practice'

Review of *Women Who Have Survived Make the World: Being a Woman in a Divided Country* by Kim, Sungkyung

Kim, Minji | 429

人文論叢

80권 2호

2023년 5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땅에서 꺼낸 고대 법률

인문학 연구관 연구자 개인의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외로운 과정이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그 과정이 쉬워지기도 한다. 학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타인의 비평을 들어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지만, 여러 명이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독회 역시 큰 도움이 된다. 이리저리 이야기하다 보면 난해한 텍스트의 의미가 어느 순간 불현듯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견해를 들으면서 텍스트에 감춰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깨닫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의 위험성을 느끼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고대사 연구실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모임을 가져왔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하는 모임인지라 약간의 부자유스러움이 없을 수 없었지만, 모두 독회의 의미와 유용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꾸준히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진행해 왔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새로운 간독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지만, 점차 모임의 횟수가 많아져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모이게 되었다. 그 목표도 단순한 자료 검토에서 최근 국내외 연구자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는 『악록진간』 울령 간독에 대한 역주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익숙한 문헌자료와 달리 간독은 여러 방면에서 낯설었다. 간독의 실물 원본 사진을 보면서 석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했고, 문자 외의 여러 형태도 살펴야 했다. 그리고는 확정된 석문에 대한 구두 표점을 하고 해석에 매달려야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구문에 대한 독회 나름의 결론을 찾아내고자 했다. 구문 하나를 검토하는 데 몇 주일이 걸리기도 했다.

예상 외로 많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원래 목표했던 출간 시기를 훌쩍 넘겨버렸지만, 조만간 역주 작업의 일부를 출간할 예정이다. 역주 작업의 출간을 앞두고 먼저 역주 작업 과정에서 오랫동안 오고 갔던 논의를 기초로 몇 가지 중요한 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작업도 쉽지 않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한 간독의 용례가 일관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기존의 논의도 워낙 복잡다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논의를 정리해 두어야 다른 연구자들의 비평과 의견 개진을 받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모아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함께 발표하게 된 글은 모두 네 편이다. 첫 번째 글은 김병준의 「진한(秦漢)시기 조령(詔令)의 반포와 령(令)의 정비」다. 역주 작업의 대상인 악록진간의 율령 중 령(令)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다. 간독에 남아 있는 령의 형식을 분석하여, 황제의 명령이 조령으로 반포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생략, 결합, 분류, 편찬되었는지의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간독의 령문이 체계적이지 못한 격식과 명칭을 갖게 된 이유, 전체 령집 중 일부 령문만이 남아있는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글은 김지은의 「진한(秦漢)시기 좌사(佐史)에 대한 재고찰」이다. 율령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한 자들을 지칭하는 좌사라는 용어를 검토했다. 기존의 연구가 좌사의 충원과정을 간과하고 단지 하급 관리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좌사가 좌와 사라는 두 가지 독립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양자를 구분하게 되면 비로소 다양한 용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급관리가 다층적으로 충원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글은 방윤미의 「진한(秦漢) 형벌체계 형성과정의 일고찰: 사구(司寇)의 기원과 ‘정형’(正刑)화 과정을 중심으로」다. 진한 형벌체계에서 사구라는 형벌은 다른 형벌과 달리 여성에게 부과되지 않았다는 특수성을 갖

고 있었다는 점을 면밀히 논증한 후, 그 원인을 사구의 기원이 리(吏)에게 부과하던 특수한 처벌이었다는 데에서 찾았다. 이렇게 기원한 사구가 기존의 형벌 체계 속에 들어가 예신첩과 속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형벌로 정형화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진한 형벌체계의 특수한 형성과정을 구명했다.

네 번째 글은 김보람의 「진(秦)·한초(漢初) 사면(赦免)대상 확대 양상과 한문제(漢文帝) 형법개혁」이다. 간독 자료를 이용하여 진에서 한문제 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면의 대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판에 계류되어 있던 미결수로서의 ‘죄인’을 사면하는 단계로부터 형벌의 특성상 사면할 수 없었던 도예와 형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문제의 형법개혁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네 편의 글이 다루는 주제는 얼핏 작은 주제처럼 보이지만, 진한 율령과 형벌제도 및 그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병준의 글은 황제의 명령인 령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과 그것이 비체계적으로 남아 있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 김지은의 글은 하급 관원의 직위와 자격을 구분함으로써 하급 관리의 분절적 이해를 시도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방윤미의 글은 사구의 정형화 과정을 통해 진한 형벌체계의 형성과 그 한계를, 김보람의 글은 사면의 대상 확대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도예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였는데, 이것들이 모두 결국 한문제 형법 개혁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한문제 형법 개혁이 갖고 있는 중층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문논총』의 특집은 진한시기 율령 및 형벌 제도 변천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한다.

